

역대 미국 대선과 팩트체크

‘거짓말쟁이’ 밝혀내 유권자 판단에 도움 주기

김필규 / JTBC 보도국 정치부 기자

“Go to the fact checkers, get to work.(팩트체커들에게 가 봅시다. 확인해 보죠.)”

2016년 미국 대선의 1차 토론이 열린 9월 26일,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IS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이어가자 힐러리 클린턴(이하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급기야 ‘팩트체크’를 호출했다.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주장이 토론 중에 계속 언급되면서 팩트체커들에게 SOS를 친 것이다.

일반명사가 된 ‘팩트체크’ 실제 이날 미국 내 많은 팩트체커가 이들의 토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 팩트체크, 팩트체크오알지(FactCheck.org) 등 기존 팩트체커뿐 아니라 뉴욕타임스, USA투데이, NBC, CNN 등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토론에 나온 팩트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팩트체크 사이트 중 하나인 폴리팩트(politifact.com)는 토론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실시간 팩트체크를 해 SNS를 통해 전파했다. 힐러리의 SOS와 상관없이 이들은 이날 토론과 관련해 수백 건의 팩트체크 결과를 내놨다. 그러면서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판가름이 났다. 폴리팩트의 창립자이자 현재는 듀크대 샌포드 공공정책대학 교수인 빌 아테어는 “이제 팩트체크는 미국 정치 담론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가 썩 과장은 아닌 모습이다. 지난해 대선

직전 NBC의 간판 쇼 프로그램인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출연한 할리우드 여배우 마고 로비도 시작부터 ‘팩트체크’를 언급했다.

“요즘 정치인들이 정말 많은 거짓말을 쏟아 내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100%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약속할게요. 제 말에 대한 팩트체크도 모두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고는 ‘셀프 팩트체크’를 시작했다.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 벌써 이름부터 원래 마고 로비가 아니라 마고 로버트거든요.”

이렇게 쇼 프로에 등장할 정도로 대중화했지만 저널리즘에서 팩트체크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최근 <진실을 결정하기(Deciding What's True)>라는 책을 낸 루카스 그레이브스(Lucas Graves) 위스콘신대 교수에 따르면 ‘팩트체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1920년대다. 당시 일부 신문사, 잡지사에서 ‘팩트체커’라는 직책을 뒀는데 조직 내에서 베테랑 기자가 후배 기자의 기사에서 잘못을 찾아내는, 이른바 ‘시어머니’ 역할이었다. 그렇게 찾아낸 잘못은 자기반성 차원에서 다시 독자에게 알려 매체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다 지금과 같은

의미의 팩트체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다.

2008, 2012 미 대선 결과에 영향 정치인이나 선거 후보, 정부 관계자 등 유력 인사 발언의 진위를

파헤치는 방식의 글쓰기에 ‘팩트체크’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것은 2003년 팩트체크오알지다. 펜실베이니아대 애너버그 공공정책센터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2004년 대선 당시 후보들의 선거 광고에서 거짓을 잡아내며 눈길을 끌었다. 그러다 주류 미디어가 이 분야에 뛰어든 것은 2007년 무렵. 워싱턴포스트와 템파베이타임스가 각각 팩트체커와 폴리팩트 사이트를 선보였다.

두 사이트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만큼 좀 더 눈길을 끌 만한 요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거짓말 정도에 대해 평가하는 레이팅 시스템(Rating System)이다. 워싱턴포스트의 경우 거짓말의 대명사인 피노키오를 활용, 약한 거짓말일 경우 피노키오 1개, 완전한 거짓말일 경우 4개를 부여했다. 분석 결과, 완전한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는 피노키오의 제작자인 ‘제페토’ 등급을 줬다. 폴리팩트는 총 6단계로, 발언이 사실일 경우 ‘진실(True)’, 거짓일 경우 ‘거짓(False)’ 등급을 주면서 그 사이에 ‘대체로 진실(Mostly True)’ ‘반만 진실(Half True)’ ‘대체로 거짓(Mostly False)’ 단계를 뒀다. 그러면서 정말 어이없는 거짓말이 나오면 ‘불붙은 바지(Pants on Fire)’라는 등급을 부여했다. 이듬해 치러진 2008년 대선과 그 이후 굵직한 선거들을 거치면서 팩트체크는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가 내놓은 TV 광고에 대한 팩트체크다. 롬니 측은 “오바마가 크라이슬러를 파산시켰고, 그 결과 이제 지프는 중국에서만 생산하게 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크라이슬러 공장이 있던 격전지, 오하이오주의 표심을 끌기 위한 회심의 카드였다. 금융 위기의 여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자동차 브랜드 지프의 생산마저 중국으로 넘어갈 지경이라고 하니 중산층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팩트체커들에게 잇따라 ‘거짓’ 판정을 받았다. 크라이슬러가 생산 기지 자체를 중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중국에 신규 라인을 추가로 만들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하이오주의 일자리 수에도 영향이 없었다. 게다가 크라이슬러를 파산에 이르게 한 배경을 따져 보면 전적으로 이전 정부의 탓이지 오바마 정부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었다. 크라이슬러 측 역시 롬니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자료를 즉각 냈다. 워싱턴포스트는 ‘Romney’s Jeep-to-China Lie’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1면 기사를 내보냈고, 폴리팩트는 롬니의 이 발언을 추후 ‘올해의 거짓말’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거액을 들여 TV 광고로까지 내보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롬니는 오하이오에서 전세를 뒤집는 데 실패했다.¹

2016년 대선에서 팩트체크는 한층 더 진화했다. 뉴욕타임스와 폴리팩트 등은 대선 후보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자사 정치 기자와 팩트체커들을 총동원해 아예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트럼프 후보가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이야기한 적 없다” “장애가 있는 기자를 놀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바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과거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유세 중 장애인 기자를 흉내 내는 모습의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 주며 반박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시청자가 TV 앞에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토론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팩트체크에 관심이 덜하던 방송사들도 하나둘 뛰어들었다. ABC와 CBS,

NBC, CNN, FOX, MSNBC 등은 이번 대선에 따로 전담자를 뒀 후보 발언 검증에 나섰다. 특히 CNN은 ‘리얼리티체크’라는 이름으로 토론 중계 후 약 30초짜리 팩트체크 영상을 내보냈는데, TV뿐 아니라 SNS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팩트체커들의 고민 팩트체크를 하다 보면 직면하게 되는 몇 가지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 첫째는 과연 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2014년 JTBC 뉴스룸에서 처음 팩트체크를 시작했을 때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평가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심의, 명예훼손 논란 등도 신경이 쓰였지만 어차피 거짓말만을 검증 대상으로 삼아 ‘틀렸다’는 결론을 낼 텐데 굳이 ‘진실’ 혹은 ‘반반 진실’ 등의 여러 항목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실’ 판정 역시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의 출생지 논란이 일어났을 때, 팩트체크오알지를 비롯한 팩트체커들이 오바마 진영에서 제시한 출생증명서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하와이, 시카고 현지를 직접 찾아가 서류를 분석하고 그 과정을 비디오로도 남겼다. 결국 하와이주에서 발급한 그의 미국 출생증명서는 ‘진실’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판정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했다는 게 그레이브스 교수의 설명이다.

또 다른 고민은 ‘무엇을 체크할 것이냐’ 하는 대상 선정의 문제다. 보통 정치적 영향력이 크거나 정국을 이끌어 가는 이들의 발언에 집중하다 보니 대통령, 정부 여당 인사가 검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잇을 만하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쏟아 내는 특정 정치인들이 단골손님이 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진영에선 “왜 우리 후보 발언만

자꾸 문제 삼느냐”며 대부분의 팩트체커를 비난했다. 심지어 “조직적인 편향성이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테어 교수의 입장은 명확하다. “팩트체커들은 저널리스트이지 사회과학자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팩트체크의 대상 선정은 기계적 균형에 맞춰서가 아니라 기자로서의 뉴스 가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가치 판단이 옳았는지는 독자와 시청자가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거치며 미국 팩트체커들은 더 근본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됐다. 수많은 ‘거짓’ 판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의 당선으로 선거가 끝났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오바마 출생 의혹,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 등이 다시 거론됐지만 많은 유권자가 다시 그 ‘홀러간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팩트체크가 정작 표심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왔다. 사실 이런 조짐은 유세 기간부터 나타났다. 트럼프는 자신의 과거 여성 비하 발언, 오바마 대통령 출생 의혹 제기 등 이미 진위가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도 절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일 없이 자기 입장을 고집했다. 오히려 팩트체커들을 당황스럽게 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커 글랜 케슬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트럼프의 거짓말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 거짓임이 드러나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주 작은 반론거리라도 나타나면 이를 전면에 내세워 결국 언론은 틀렸다고 결론 내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옳았다는 환상을 지지자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도 이런 전략을 따라 하는 후보들이 나타나고, 유권자들이 그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면 팩트체커들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팩트체커들은 저널리스트이지 사회과학자가 아니다.** 팩트체크의 대상 선정은 기계적 균형에 맞춰서가 아니라 기자로서의 뉴스 가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가치 판단이 옳았는지는 독자와 시청자가 판단할 일이다.”

없다. 하지만 아테어 교수는 그렇다고 ‘팩트체크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질 일은 아니라고 봤다. 원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어긋난 팩트를 무시하고 외면하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에서 유독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일 뿐, 팩트체크는 이번 대선에서도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양극화된 미국 사회에서도 비록 얕지만 중간에는 항상 정치적 부동층이 존재해 왔다. 이들은 언제나 가치 있는 뉴스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고, 양질의 팩트체크는 이들을 움직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팩트체커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결국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민주주의 몫”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2017년 팩트체크의 새로운 도전 실제 미국의 팩트체커들은 대선 후 다시 고삐를 조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미디어에서 큰 골칫거리로 등장한 게 ‘가짜 뉴스’다. 기존 매체와 비슷한 이름, 도메인 주소로 눈속임해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든지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식의 거짓 뉴스를 쏟아 내고 있다. 주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포되는데 확산 속도가 빨라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현재 폴리팩트,

AP, 스놉스닷컴(Snopes.com) 등의 팩트체커들은 페이스북으로부터 특정 콘텐츠가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검증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활동 중이다. 이들에게 ‘가짜’로 판명된 콘텐츠는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될 때마다 ‘논란 중’이라는 딱지가 붙어 전해지게 된다.

폴리팩트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실험은 선거 토론을 보고 있는 시청자에게 한 화면 안에서 직접 실시간 팩트체크 결과를 전해 주는 것이다. 실제 이번 미국 대선 토론 방송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왔을 때 팝업창을 열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 주는 방식으로 일부 구현한 바 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볼 경우로 한정돼 있지만 향후 TV를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듀크대 샌포드 공공정책 대학에 마련된 리포터랩(Reporters’ Lab)에선 유권자들이 원할 때 언제라도 가장 편한 방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팩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그 시도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엔 음성인식을 통해 모든 질문에 답해 주는 ‘아마존 에코’에 탑재될 앱을 개발했다.

올해 한국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또 많은 유권자의 관심이 몰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팩트체커가 각 매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에 책임 떠넘기기’ ‘색깔론으로 몰타기’ ‘허위 SNS 흘리기’ 등 한껏 강력해진 거짓으로 무장한 후보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독자, 시청자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성공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것, 미국 대선 과정의 처음과 끝을 지켜본 한국 팩트체커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

¹ Graves, Daniel Lucas(2016), Deciding What’s True: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in American Journalism, ColumbiaUnivPr.